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형 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반사회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분석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은 영

일반사회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분석

박 형 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은 영

# 인 준 서

김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년부터 새로 실시된 대학입시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매해 시행되어 오고 있다. 대입 수능시험 중 사회탐구영역은 수험생들이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는 점에서 과목의 수요적 측면까지 고려하게 된다. 사회탐구영역의 한 분야인 일반사회과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4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편을 겪으며 일부 과목이 통합편성됨으로써 3과목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은 사회과 교육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였으며 과목의 존속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일반사회과 과목의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함과 동시에 대입 수능시험에서의 선택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교 2, 3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일반사회과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많은 학생들이 일반사회과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 과목은 여학생일수록, 선호도가 높을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진로와 관련이 있을수록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법과 사회 과목은 선호도가 높을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진로와 관련이 있을수록 학생들이 더 선택하고자 한다. 정치 과목은 여학생일수록, 선호도가 높을수록,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정

치 과목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수록, 수능 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선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로부터 얻은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일반 특성은 성별뿐이었으므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인식 특성은 선호도, 중요도, 적성도, 성적유리성, 진로관련성이었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으로 선호도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고,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대입 수능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적 탐구능력과 소질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사회과 과목의 선택이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관련이 있을수록 일반사회과 과목을 더 선택하고자 하므로 관련학과 진학 시 사회과 선택과목 수능 성적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계에 있는 고등학교 2, 3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정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사회과에 속하는 모든 과목을 연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회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수가 줄고 통합합되는 등 교육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사회과교육의 발전과 효과적인 운영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4
II. 이론적 배경 .....	6
1. 선택중심 교육과정 .....	6
1)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배경 .....	6
2)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의의 .....	8
3)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	10
2. 일반사회과 선택과목의 성격과 목표 및 내용 .....	13
1) 사회·문화 .....	13
2) 경제 .....	14
3) 법과 사회 .....	16
4) 정치 .....	17
5) 법과 정치 .....	19
6) 일반사회과 선택과목의 내용 구성 .....	20

3. 사회과 과목 선택 실태 .....	22
4. 관련연구 .....	24
<b>III. 자료 조사 및 분석 방법 .....</b>	<b>29</b>
1. 연구목적 .....	29
2. 조사범위와 방법 .....	29
3. 분석방법 .....	30
<b>IV. 분석결과 .....</b>	<b>32</b>
1. 기초분석 .....	32
1) 표본의 구성 .....	32
2) 사회과 심화과목 이수 현황 .....	35
① 12학년 선택과목 이수 현황 .....	35
② 11학년 선택과목 이수 현황 .....	37
3) 사회과 과목 선택 의사 .....	39
① 12학년 사회과 과목 선택 .....	39
② 11학년 사회과 과목 선택 .....	41
2. 인식 특성 측정척도의 신뢰성 검증 .....	43
3. 실증분석 .....	45
1) 사회·문화 .....	45
① 사회·문화 과목 이수 여부 .....	45
② 사회·문화 과목 선택 여부 .....	45

③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	47
2) 경제 .....	49
① 경제 과목 이수 여부 .....	49
② 경제 과목 선택 여부 .....	49
③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	51
3) 법과 사회 .....	53
① 법과 사회 과목 이수 여부 .....	53
② 법과 사회 과목 선택 여부 .....	53
③ 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	55
4) 정치 .....	57
① 정치 과목 이수 여부 .....	57
② 정치 과목 선택 여부 .....	57
③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	59
5) 법과 정치 .....	61
① 법과 정치 과목 이수 여부 .....	61
② 법과 정치 과목 선택 여부 .....	61
③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	62
6) 분석결과 종합 .....	64
① 일반사회과 선택 과목 이수 현황 .....	64
②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 비율 .....	65
③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5 .....	65
7)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	68

<b>V. 결론</b> .....	71
1. 분석결과 요약 .....	71
2. 시사점 및 한계 .....	7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용 설문지

<부록 2> 고등학교 2학년 학생용 설문지

## 표 목 차

<표 1>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변화 .....	12
<표 2> 일반사회과 선택 과목의 내용 구성 .....	21
<표 3> 최근 3년 사회탐구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 .....	23
<표 4> 변수 설명 예시 - 사회·문화 .....	31
<표 5> 조사 대상자의 특성 .....	34
<표 6> 12학년 사회과 선택과목 이수 현황 .....	36
<표 7> 11학년 사회과 선택과목 이수 현황 .....	38
<표 8> 12학년 사회과 과목 선택 .....	40
<표 9> 11학년 사회과 과목 선택 .....	42
<표 10> 인식 특성의 신뢰성 검증 결과 .....	44
<표 11> 사회·문화 과목 이수 여부 .....	45
<표 12> 사회·문화 과목 선택 여부 .....	46
<표 13> 사회·문화 과목 선택 비율과 수능 시험 응시 비율 비교 .....	46
<표 14> 사회·문화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	48
<표 15> 경제 과목 이수 여부 .....	49
<표 16> 경제 과목 선택 여부 .....	50
<표 17> 경제 과목 선택 비율과 수능 시험 응시 비율 비교 .....	50
<표 18> 경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	52
<표 19> 법과 사회 과목 이수 여부 .....	53
<표 20> 법과 사회 과목 선택 여부 .....	54
<표 21> 법과 사회 과목 선택 비율과 수능 시험 응시 비율 비교 .....	54
<표 22> 법과 사회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	56

<표 23> 정치 과목 이수 여부 .....	57
<표 24> 정치 과목 선택 여부 .....	58
<표 25> 정치 과목 선택 비율과 수능 시험 응시 비율 비교 .....	58
<표 26> 정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	60
<표 27> 법과 정치 과목 이수 여부 .....	61
<표 28> 법과 정치 과목 선택 여부 .....	62
<표 29> 법과 정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	63
<표 30>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	67

## 그림 목 차

[그림 1] 12학년 사회과 과목별 이수 인원 .....	36
[그림 2] 11학년 사회과 과목별 이수 인원 .....	38
[그림 3] 12학년 사회과 과목별 선택 인원 .....	40
[그림 4] 11학년 사회과 과목별 선택 인원 .....	42
[그림 5] 일반사회과 선택과목 이수 비율 .....	64
[그림 6]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 비율 .....	65

# I. 서론

## 1. 연구목적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부터 새로 실시된 대학입시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매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외국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어 통합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회과학적 탐구 능력과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탐구영역은 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 분야로 구분된다. 또한 각 분야를 선택 과목으로 세분화하여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이 11과목, 2학년이 10과목으로 그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하다<sup>1)</sup>. 따라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여부는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서부터 각 학교 및 중등교육과정의 운영까지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sup>2)</sup>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며 등장하였다.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과목에서 가장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사회과 선택과목들은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하여 일부 과목은 통폐합되었으며, 영역 별로 신설 및 분리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세 과목의 사회탐구영역 과목을

---

1)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2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사회과의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시행되지 않았다.

2) 사회의 민주화 및 다원화와 함께 다양한 교과서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사회 교과서에도 검정제도가 도입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두 과목만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축소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은 사회과교육이 많은 학생들과 중등교육과정에서 교육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을 더욱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였으며, 과목의 존속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 외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미국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내용 통합을 시도하고, 고학년인 11, 12학년에서는 일반사회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영국 또한 고학년에 해당하는 Key Stage 3~4에서 시민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역사, 지리, 사회, 경제·법을 전기 중등 교육부터 필수교과로 구성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 일본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 중 각각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최소한 세 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사회과 관련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교사의 권한 하에 사회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역사, 지리를 비롯하여, 일반사회과 과목을 필수교과로 지정하는 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선택 교과로 분류됨으로써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기회가 닿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과의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회과 과목을 이수함과 동시에 대입 수능시험에서의 선택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대입 수능시험에서 일

---

3)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면서 사회과(역사 포함) 교육의 적정화를 모색하는 개정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부 사회과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했다는 것은 그 사회과 과목을 이수 및 학습했다는 것이며,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일수록 교육적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교 2, 3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사회과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일반사회과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과 향후 사회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객관적인 측정을 위하여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시간적 범위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6월로 한하였고, 이 기간에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2년 3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제되는 문항의 수정 및 보완 후 확정된 최종설문지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기간은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이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개의 고등학교로 한정하였으며, 일반사회과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고등학교 2, 3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 부분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일반사회과 선택과목의 성격과 목표 및 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사회과 과목 선택 실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및 제시하였다.

제3장은 자료 조사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실증분석 단계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반사회과 선택과목 이수 현황과 선택 의사를 파악하였으며, 일반사회과 선택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일반 및 인식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적 연구방법으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와 의의, 일반사회과에 속하는 사회·문화, 경제, 법과 사회, 정치, 법과 정치 교과목의 성격과 목표 및 내용,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실증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사회과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고등학교 2, 3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정하고, 연구조사 방법은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 설문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예비조사에서 총 90부를 배포하였고, 수거 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700부를 배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선택중심 교육과정

#### 1)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배경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사회는 양적 성장을 강조한 산업시대와 달리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다양성, 창의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보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은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교사 중심의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되었으며 학습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진재관, 2006).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부터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11학년, 12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그 동안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주체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인식 하에, 학생에게도 자신의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울 권리를 어느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소경희, 2002).

소경희(2002)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의사결정 권한을 학생 수준으로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 흥미, 적성, 수준 등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지역이나 학교, 나아가 학생의 특성을 살린 교육이 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다. 물론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지역화’ 방침이 설정되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의 일부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위임되었으나 학생에게까지는 그러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적성, 흥미, 수준, 진로와 상관없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가 결정한 과목들을 거의 필수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 소질, 적성, 흥미 등과 관련한 과목들을 선택하여 그러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그동안 여러 교과목에 걸친 과목들을 매 학기마다 펼쳐서 배우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학기당 배우는 교과목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학습이 피상적이기 쉽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다과목 피상 학습’은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많다는 점에서는 학습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흥미를 가진 과목에 대한 심층 학습의 기회를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도 ‘소과목 심층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적게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많이 가르치는 것(Less is more)”이라는 구호 하에 학생들이 소수의 교육 내용에 대해 심층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진 외국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은 적성 및 진로와 관련된 몇 과목만을 대학의 전공 기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소과목 심층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개혁 방침 중의 하나도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축소’에 있다.

## 2)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의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 등장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과목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의 선택과목에서 가장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 ‘적성과 소질’, ‘선택과 집중’, ‘차이와 다양성’이라는 교육적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고등사고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그 동안의 ‘다과목 피상 학습’에서 ‘소과목 심층 학습’으로 전환하여, 학생의 흥미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강창동, 2004).

서울시교육청(2002)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허용함으로써 교육내용의 개인적 적합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2002)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중요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자율성의 함양에 기여한다. 자율성 함양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자율성은 수많은 시행착오적인 선택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율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율성이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아서 도전적, 능동적, 적극적 성향과 태도가 함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둘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적성의 발견에 기여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해 보기 위한 과감한 탐색적 시도가 필요하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자기 탐색적 선택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주어진 여러 과목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부하는 경험을 통하여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과목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적성의 신장에 기여한다. 적성의 신장을 위해서는 경험의 집중이 필수적이다. 적성이 발견된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적성은 신장되고 능력은 향상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영역의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성의 신장을 도모한다.

넷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 학업성취도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다. 모든 학생들은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일은 학교교육의 가장 가치적이고 실질적인 목표이다. 학업성취의 수준을 높인다는 인지적 목표는 바람직한 흥미나 태도 등을 기른다는 정의적 목표보다 달성하기가 용이하며, 달성 여부나 그 정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체제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 필요와 능력 수준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므로 즐겁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다섯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배움의 진정한 가치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외부적으로 강요되는 과목, 자신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과목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는 몰두할 수 없게 되고 즐거움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우리가 좋아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우리

의 능력에 맞는 과목, 우리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므로 그 과목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으로써 공부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여섯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은 보다 어렵고 높은 수준의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함으로써 도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도전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동안 자신의 능력 수준을 보다 높은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함으로써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모여질 때 그 결과는 고등학교 교육전체의 효과를 높이고 우리 교육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3)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사회과 심화선택 과목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 능력,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 및 가치·태도 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사회과의 기본적 성격을 전제로 하며,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적성과 장래진로와 관련된 개별 사회 과학 분야의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현상, 사회 문제 및 쟁점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과목으로 볼 수 있다(은지용, 2006).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총 10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탐구영역 과목에서는 윤리과목이 포함되어 총 11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적용된다. 사회

탐구영역 선택 과목은 일반사회 영역의 사회·문화, 경제, 법과 사회, 정치 과목으로, 역사 영역의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과목으로, 지리 영역의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과목으로, 윤리 영역의 윤리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총 8과목, 도덕·윤리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총 2과목으로 통폐합 및 신설 등의 변화를 겪었으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사회탐구영역 선택 과목은 일반사회 영역의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 과목으로, 역사 영역의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으로, 지리 영역의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으로, 윤리 영역의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 과목으로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였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과목만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변경되었다<sup>4)</sup>.

구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문화’ 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시된 대로 교육과정을 존속시키고, ‘경제’ 교육과정은 ‘경제생활과 금융’이라는 단원을 신설하는 부분 개정을 하였으며, ‘법과 사회’와 ‘정치’ 과목은 합하여 ‘법과 정치’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하였다.<sup>5)</sup>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사

---

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역사포함)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이라는 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사회과 선택과목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그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는 개정의 기본 방향을 밝히고 있다.

5) ‘법과 사회’ 과목과 ‘정치’ 과목이 통합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 네 과목 체제를 세 과목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문화’는 수능시험에서 수요가 1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사회과 전체적으로 볼 때 득이 된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교육과정 개정 관여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전제철, 2010).

회과 선택중심 과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변화

구분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택과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제7차 교육과정	사회(10) 국사(4)	인간 사회와 환경(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2007 개정 교육과정	-	한국 지리(6), 세계 지리(6), 경제 지리(6), 한국 문화사(6), 세계 역사의 이해(6), 동아시아사(6), 법과 사회(6), 정치(6), 경제(6), 사회·문화(6)	
2009 개정 교육과정	사회* 한국사*	한국 지리(5), 세계 지리(5), 동아시아사(5), 세계사(5), 법과 정치(5), 경제(5), 사회·문화(5)	

출처: 교육부(2006),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 발췌

-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 ( ) 안의 숫자는 단위 수
- 2009 개정 교육과정 - ①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②\*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중 사회과의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시행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선택 과목 교육과정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한다는 등의 교육과정 개정의 이유가 성숙되지 않은 점에서 학계나 전문가들에게 거부 반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2. 일반사회과 선택과목의 성격과 목표

### 1) 사회·문화

‘사회·문화’ 과목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탐구 방법을 익혀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선택과목이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는 ‘사회·문화’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회·문화’ 과목은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문화적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방법, 개인과 사회구조, 사회 문제, 사회 제도, 사회 변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 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학문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조직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민주사회의 시민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학습자들이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 방법과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하여 세계 속의 주체적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 또한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를 신장하여 민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자질을 육성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으로서의 ‘사회·문화’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에 대한 소양을 길러줌으로써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여 관련 사회과학을 탐구하는데 기초를 제공해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는 ‘사회·문화’ 과목의 총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스스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지식과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그리고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른다.

‘사회·문화’ 교육과정 문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문화’ 과목은 기반 학문인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의 핵심적인 지식과 연구 방법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기본적인 속성과 다양한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쟁점이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성격의 과목임을 알 수 있다(은지용, 2006).

이러한 ‘사회·문화’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반영하여 내용 체계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개인과 사회 구조, 문화와 사회, 사회 계층과 불평등,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현대사회와 사회변동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경제

경제 과목은 경제적 사고력과 경제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선택과목이다. 이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사회’ 과목의 경제 관련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시키는 과목의 성격을 갖는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는 ‘경제’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경제’ 과목은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경제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을 추구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경제적 자질은 경제적 사고력과 경제적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 과목은 중학교 공통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사회’ 과목의 경제관련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습하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이다. 특히 선택과목 ‘경제’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심화된 경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 학습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다양한 생활 속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는 ‘경제’ 과목의 총괄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실 경제의 다양한 현상과 경제 사회의 변동을 파악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실천적 탐구 방법을 익히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실천적 자세를 가진다.

김종호(2006)는 경제 교육 목표의 이론적 고찰에서 경제시민성이 경제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고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 함양은 경제시민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가 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유능한 경제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된 ‘경제’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내용 체계에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이해,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시장과 경제 활동, 국민 경제의 이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는 경제생활과 금융이라는 단원이 신설되었다.

### 3) 법과 사회

‘법과 사회’ 과목은 학생들이 법의 이념과 원리 및 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현대 법치 국가의 민주시민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사고력, 가치판단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올바른 법의식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선택 과목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2007)에서는 ‘법과 사회’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법과 사회’ 과목은 사회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생활 소재를 중심으로 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 원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문제 상황들을 논리적·법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법절차에 따라 합리적·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육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엽적이고 세세한 법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각 생활영역에서 핵심적인 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적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도록 한다.

‘법과 사회’ 과목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법의 필요성과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법과 사회’ 과목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법과 사회’ 과목은 기본적인 법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상황을 민주사회의 법이념에 따라 합리적·합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 가치관 및 태도를 지니게 한다.

다시 말하면 ‘법과 사회’는 일상 생활 속에서 법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법 지식 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는 법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합법적 판단력과 행동), 그리고 가치·태도 측면에서 법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생활하는 태도(법적 가치와 이념에 적합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박성혁, 2005).

이러한 ‘법과 사회’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반영하여 학습 내용 체계는 법 생활의 기초, 국가적 생활과 법, 개인적 생활과 법, 사회적 생활과 법, 범죄와 형사절차와 같이 구성하고 있다.

#### 4) 정치

‘정치’ 과목은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의 원리를 파악하며 정치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선택 과목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2007)에서는 ‘정치’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치’ 과목은 정치 공동체인 국가와 정부,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정부 기구의 일반적인 구성이나 운영 원리,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발전 과제, 국민의 권리·의무와 정치과정, 국제사회의 특징과 문제 및 외교 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치’ 과목은 학습자로 하여금 정치 현상과 관련된 개념·원리 등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다양한 정치 행위자와 정치 제도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치적 기능이 수행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한다.

‘정치’ 과목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정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획득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한다. 변화하는 정치 상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역·국가·국제사회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정치’ 과목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원리를 학습하고 정치적 쟁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 시민의 자세를 가진다.

육일남(2011)은 교육과정 문서 규정에 나타난 정치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정치 교육이 추구하는 요소들을 파악해 보면,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기본 지식,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정치적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결정능력,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참여 능력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하고, 민주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 능력을 함양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반영하여 학습 내용 체계는 민주 정치의 발전,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조직과 통치, 정치 과정과 참여, 국제사회와 정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법과 정치

‘법과 정치’ 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별개의 과목으로 운영되었던 ‘정치’와 ‘법과 사회’ 과목을 재구성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는 ‘법과 정치’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법과 정치’ 과목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민주시민의 핵심적인 자질과 공동체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법과 정치’ 과목의 주요한 학습내용으로 법의 이념과 원리 및 그 체계 그리고 정치 현상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민주정치와 법치주의 관계,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기본권 보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 원리, 국제사회의 특징과 국제법 등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룬다.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이러한 교육 과정의 내용들이 일상생활과의 연계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 정치 제도와 원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딱딱하고 추상적으로만 느껴지기 쉬우므로 실제로 학습되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생활 소재를 중심으로 법·정치 원리에 대한 탐구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법적, 정치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은 ‘법과 정치’ 과목의 학습을 통해 법·정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사회·국가·국제사회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법과 정치’ 과목의 총괄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법·정치적 쟁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법·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가지게 한다. 또한 기본적인 법의 이념과 원리 및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합리적이고도 정당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의무가 이행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지니게 한다.

이러한 ‘법과 정치’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반영하여 학습 내용 체계는 민주정치와 법,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헌법의 기본원리, 개인 생활과 법, 사회 생활과 법,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 6) 일반사회과 선택과목의 내용 구성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화, 경제, 법과 사회, 정치, 법과 정치 과목의 단위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사회·문화 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존속되었으며, 경제 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 ‘경제생활과 금융’이라는 단원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되어 일부 개정되었다.

법과 사회와 정치 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독립교과로 운영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정치 과목으로 통합편성되어 내용의 구성이 일부 편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일반사회과 선택과목의 내용 구성

과목	교육과정	단원의 구성
사회·문화	제7차, 2009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li> <li>● 개인과 사회 구조</li> <li>● 문화와 사회</li> <li>● 사회 계층과 불평등</li> <li>● 일상생활과 사회제도</li> <li>● 현대사회와 사회변동</li> </ul>
경제	제7차, 2009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이해</li> <li>●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li> <li>● 시장과 경제 활동</li> <li>● 국민 경제의 이해</li> <li>●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li> <li>● 경제생활과 금융(신설)</li> </ul>
법과 사회	제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생활의 기초</li> <li>● 국가적 생활과 법</li> <li>● 개인적 생활과 법</li> <li>● 사회적 생활과 법</li> <li>● 범죄와 형사절차</li> </ul>
정치	제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 정치의 발전</li> <li>● 국민의 권리와 의무</li> <li>● 국가의 조직과 통치</li> <li>● 정치 과정과 참여</li> <li>● 국제사회와 정치 단위</li> </ul>
법과 정치	2009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정치와 법</li> <li>●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li> <li>● 헌법의 기본원리</li> <li>● 개인 생활과 법</li> <li>● 사회 생활과 법</li> <li>●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li> </ul>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인적자원부(2007)

### 3. 사회과 과목 선택 실태

최근 3년간 대입수능시험의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을 <표 3>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3>를 보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선택과목별 순위가 대체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 영역의 경우 고등학교 한국사가 2012학년도부터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되었고, 각종 국가고시에서도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 역시 선택과목 중 한국근·현대사를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사와 세계사는 사회과 선택 과목 중에서 하위권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역사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한국사로 통합하였고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신설되었다.

지리 영역의 경우 한국지리 과목의 선택율은 상위권이나, 세계지리와 경제지리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이 폐지되어 지리 영역은 2과목으로 축소되었다.

일반사회 영역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사회문화이며, 전체 과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선택 순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정치와 법과 사회 과목은 중위권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정치로 통합 편성되었으므로, 응시 비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는 201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응시자 비율과 선택 순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최근 3년 사회탐구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

영역	과목	과목별 응시 현황					
		2010학년도 수능		2011학년도 수능		2012학년도 수능	
		인원(비율)	순위	인원(비율)	순위	인원(비율)	순위
일반 사회	사회·문화	280,470(75.4)	1	287,918(74.2)	1	239,665(60.0)	1
	정치	127,937(34.4)	5	124,623(32.1)	5	92,602(23.2)	5
	경제	84,837(22.8)	6	75,372(19.4)	6	41,726(10.4)	9
	법과 사회	63,735(17.1)	8	63,520(16.4)	8	46,838(11.7)	6
역사	한국근·현대사	233,487(62.7)	3	236,487(61.0)	3	167,236(41.8)	3
	국사	69,704(18.7)	7	63,838(16.5)	7	43,441(10.9)	8
	세계사	38,785(10.4)	11	42,428(10.9)	11	31,158(7.8)	10
지리	한국지리	248,246(66.7)	2	238,620(61.5)	2	187,941(47.0)	2
	세계지리	49,094(13.2)	10	56,531(14.6)	9	43,840(11.0)	7
	경제지리	61,375(16.5)	9	52,890(13.6)	10	29,999(7.5)	11
	윤리	188,966(50.8)	4	200,806(51.8)	4	152,976(38.3)	4
	응시자수	372,113		387,887		399,679	

출처 :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사회과 선택과목은 통·폐합 및 신설·분리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학생들의 선택 여부에 따라 학교 등에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관련연구

선택 과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석훈(2008)은 과학과 선택과목 선정 시 흥미, 성취도, 진로, 대학에서의 요구, 이해도 요인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신민자·송방호(2006)은 과학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적성, 흥미, 진로 등이 중요한 영향 인자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지리 과목에 대한 고등학생의 선호도를 분석한 박정욱(2005)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사회과 심화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은 흥미와 적성에 맞고 내용이 쉬우며 대입수능시험과 내신에서의 유리한 성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유용욱 외(2001)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일수록, 체육 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체력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체육 과목을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갑(2006)은 고등학교 영어과 선택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의 유용성과 수준별 지도 및 쉽고 흥미로운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최재철(2006)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스페인어 과목에 흥미가 있을수록, 필요성을 느낄수록,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여길수록 스페인어 과목을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화·장윤옥(2000)은 학생들이 가정과 교육의 진보적·전통적 역할을 높게 인식할수록, 학교 성적이 중간 수준일수록, 어머니가 희망할수록 가정 과학 과목을 더 선택한다고 분석하였다.

정은희(2005)는 ‘미술과 생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흥미·적성, 신체적·성격적 특성, 성적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사회과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태도 혹은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연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과목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성에 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과 과목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 한 과목만을 연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문화 과목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문항분석과 교육과정 및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주태연(2008)의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서술양식<sup>6)</sup>이 사회·문화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와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김주동(2006)은 여학생들이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는 요인과 과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사회·문화 과목이 타 과목에 비해 위기감이 덜하며,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파악된

---

6) 인간의 의도와 그 변화가 개입된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양식을 의미한다(주태연, 2008).

다.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교육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안병근(2010)의 연구가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 과목을 좋아하고 쉽다고 생각할수록,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경제 과목을 더 선택하게 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교육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5차년도(2008학년도)의 자료에서 수능시험 성적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경동·장경호(2011)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일수록, 성적이 우수하고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감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시 지역일수록 경제를 더 선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일반적인 요인만을 분석하였을 뿐,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인식 요인에 관해서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법과 사회 과목과 관련한 연구에는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곽한영(2005)의 연구가 있다. 교과서 본문의 내용이 흥미롭지 못하는데 비해 학습 요소의 양이 많으며 내용은 어렵다는 인식이 분석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생들의 인식 분석을 교과서로 국한하였다.

또한 법과 사회 과목에 대해 인식차이를 분석한 정경희(2010)의 연구에서는 흥미 및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수록,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할수록 학생들이 법과 사회 과목을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법과 사회 과목에 대한 일반계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의 계열별 인식차이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 과목과 관련해서는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 요인 및 정치 과목을 선택

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교육과정의 검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옥일남(2011)은 정치 교육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정치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따라 내용 요소가 체계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민주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 요소를 선택하여 앞으로도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법과 사회 및 정치 과목은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통합 운영되므로 각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보다는 효과적인 통합 체제 운영 방안과 교육과정에 관한 검토를 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법과 정치 과목에 대한 연구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이후 학생들의 선택 여부에 따라 앞으로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성별, 성적 수준, 가정 계층, 선호도, 중요도, 흥미도, 적성도, 성적유리성, 내용난이도, 학습 분량, 생활에서의 유용성, 진로와의 관련성이 선택과목을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하고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의 경계에 있는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향후 사회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둘째, 일반사회과 선택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식적 특성을 함께 분석한 후, 선택에 영향을 주는 특성에 따라 교육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셋째, 법과 사회 및 정치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법과 정치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하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Ⅲ. 자료 조사 및 분석 방법

####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사회과 과목의 선택여부에 영향을 주는 고등학교 2, 3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의 일반 특성 및 인식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실증 자료 수집에 있다.

#### 2. 조사 범위와 방법

본 조사의 대상적 범위는 사회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2, 3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들로 한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개의 고등학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2년 3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정을 실시하여 문제시되는 문항의 제거 및 수정 등으로 확정된 최종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기간은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이었다.

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에 나타난 지시어를 바탕으로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으로 실시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 과정을 거쳐, SPSS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식 특성 측정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ze)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다변량 분석 방법이다(우수명, 2010).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각 과목 선택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서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을 경우는 '0'의 변수를 부여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독립변수는 일반 특성과 인식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일반 특성은 성별, 성적 수준, 가정 계층, 희망 전공으로 구성하였고 이 중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하는 더미 변수이다. 과목에 대한 인식 특성의 변수들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인식 특성은 각 과목에 대한 선호도, 중요도, 흥미도, 적성도, 수능시험 성적에서의 유리성(이하 성적유리성), 난이도, 학습 분량, 진로와의 관련성(이하 진로관련성),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이하 생활유용성)이다.

<표 4> 변수 설명 예시 - 사회·문화

변수 명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선호도	나는 사회·문화 과목이 좋다.	1	2	3	4	5
중요도	나는 사회·문화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흥미도	나는 사회·문화 과목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1	2	3	4	5
적성도	사회·문화 과목은 나의 적성에 맞다.	1	2	3	4	5
성적 유리성	사회·문화 과목은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	1	2	3	4	5
난이도	사회·문화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쉬운 편이다.	1	2	3	4	5
학습 분량	사회·문화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학습할 분량이 적은 편이다.	1	2	3	4	5
진로 관련성	사회·문화 과목은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	1	2	3	4	5
생활 유용성	사회·문화 과목은 일상생활이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과목이다.	1	2	3	4	5

### Ⅲ. 분석 결과

#### 1. 기초 분석

##### 1) 표본의 구성

조사 자료의 일반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응답자들의 특성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6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사회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년은 2학년이 388명으로 49.1%, 3학년이 402명으로 50.9%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은 남학생이 437명으로 55.3%, 여학생이 353명으로 44.7%이다. 남녀 비율을 보면, 남학생이 다소 많은 것처럼 보이나 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고등학교 남녀 학생 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일반계고를 기준으로 남학생은 1,943,798명 중 1,033,540(53.2%), 여학생은 910,258(46.8%)이다. 따라서 성별 표본은 실제 재학 중인 학생 비율에 근접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성적수준은 최상위권이 23명으로 2.9%, 상위권이 67명으로 8.5%, 중상위권이 241명으로 30.5%, 중하위권이 294명으로 37.2%, 하위권이 135명으로 17.1%, 최하위권이 29명으로 3.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계층은 상상이 16명으로 2.0%, 상하가 38명으로 4.8%, 중상이 320명으로 40.5%, 중하가 321명으로 40.6%, 하상이 67명으로 8.5%, 하하가 21명으로 2.7%이다.

희망전공은 교육 계열이 82명으로 10.4%, 법학 계열이 23명으로 2.9%, 경

제·경영 계열이 174명으로 22.0%, 인문·사회 계열이 222명으로 28.1%, 보건·의료 계열이 46명으로 5.8%, 예·체능 계열이 165명으로 20.9%, 기타(미결정, 군사학과, 조리학과, 제과제빵 등)가 55명으로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성적 수준은 중위권에, 가정 계층은 중의 수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망전공은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이 대상인만큼 인문·사회 계열, 경제·경영 계열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보건·의료 계열과 이공 계열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인 표본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조사대상자의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11학년	388	49.1
	12학년	402	50.9
성별	남	437	55.3
	여	353	44.7
성적수준	최상위권	23	2.9
	상위권	67	8.5
	중상위권	241	30.5
	중하위권	294	37.2
	하위권	135	17.1
	최하위권	29	3.7
	미응답	1	0.1
가정계층	상상	16	2.0
	상하	38	4.8
	중상	320	40.5
	중하	321	40.6
	하상	67	8.5
	하하	21	2.7
	미응답	7	0.9
희망전공	교육 계열	82	10.4
	법학 계열	23	2.9
	경제·경영 계열	174	22.0
	인문·사회 계열	222	28.1
	보건·의료 계열	46	5.8
	이공 계열	21	2.7
	예·체능 계열	165	20.9
	기타(미결정, 제빵, 군사학과 등)	55	7.0
미응답	2	0.3	
합계		790	100

## 2) 사회과 선택과목 이수 현황

### ① 12학년 선택과목 이수 현황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제7차 교육과정에 속해 있으며, 사회과 선택과목의 수는 총 11과목이다. 이들은 2013학년도 대입수능시험에서 3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2012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3학년 연구대상인 402명의 학생들이 사회과 선택과목을 이수한 현황은 <표 6>과 같으며, 선택과목별 이수 인원을 그래프로 정리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일반사회 영역의 사회·문화 과목은 368명으로 91.5%, 경제 과목은 227명으로 56.5%, 법과 사회 과목은 107명으로 26.6%, 정치 과목은 289명으로 7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역사 영역의 국사 과목은 348명으로 86.6%, 세계사 과목은 38명으로 9.5%, 한국근·현대사 과목은 368명으로 91.5%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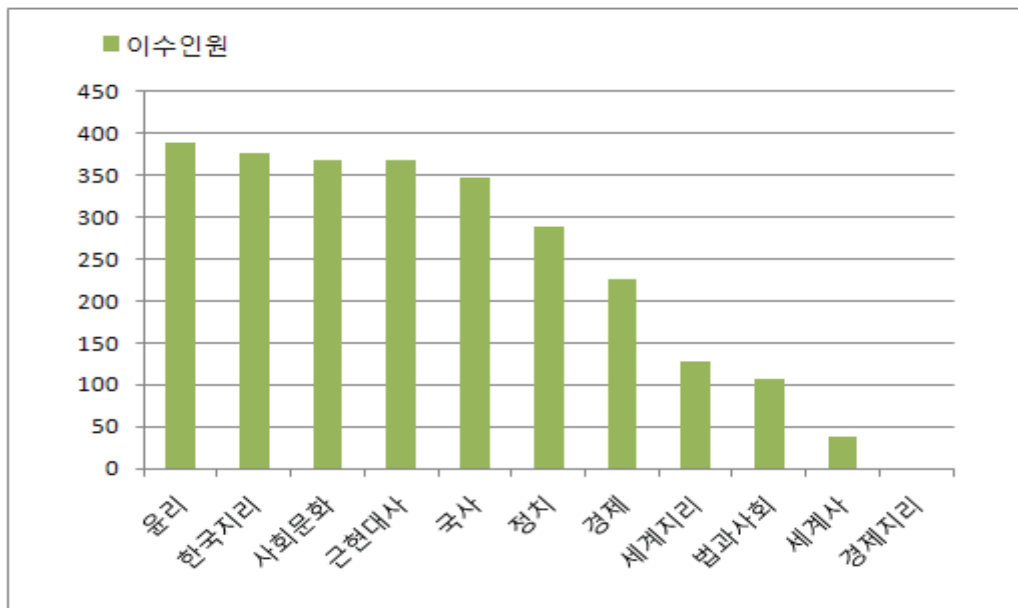
지리 영역의 한국지리 과목은 376명으로 93.5%, 세계지리 과목은 128명으로 31.8%였으며 경제지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윤리 과목은 390명으로 97.0%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선택과목 이수 현황을 보면, 윤리 과목의 이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지리, 사회·문화, 한국근·현대사, 국사, 정치, 경제, 세계지리, 법과 사회, 세계사 과목 순이었다.

<표 6> 12학년 사회과 선택과목 이수 현황

영역	과목	이수 인원 (n=402)	비율 (%)
일반 사회	사회·문화	368	91.5
	경제	227	56.5
	법과 사회	107	26.6
	정치	289	71.9
역사	국사	348	86.6
	세계사	38	9.5
	한국근·현대사	368	91.5
지리	한국지리	376	93.5
	세계지리	128	31.8
	경제지리	0	0
윤리		390	97.0



[그림 1] 12학년 사회과 과목별 이수 인원

## ② 11학년 선택과목 이수 현황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속해 있으며, 사회과 선택과목의 수는 총 10과목이다. 이들은 2014학년도 대입수능시험에서 2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2012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2학년 연구대상인 388명의 학생들이 사회과 선택과목을 이수한 현황은 <표 7>과 같으며, 선택과목별 이수 인원을 그래프로 정리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일반사회 영역의 사회·문화 과목은 308명으로 79.4%, 경제 과목은 130명으로 33.5%, 법과 정치 과목은 142명으로 3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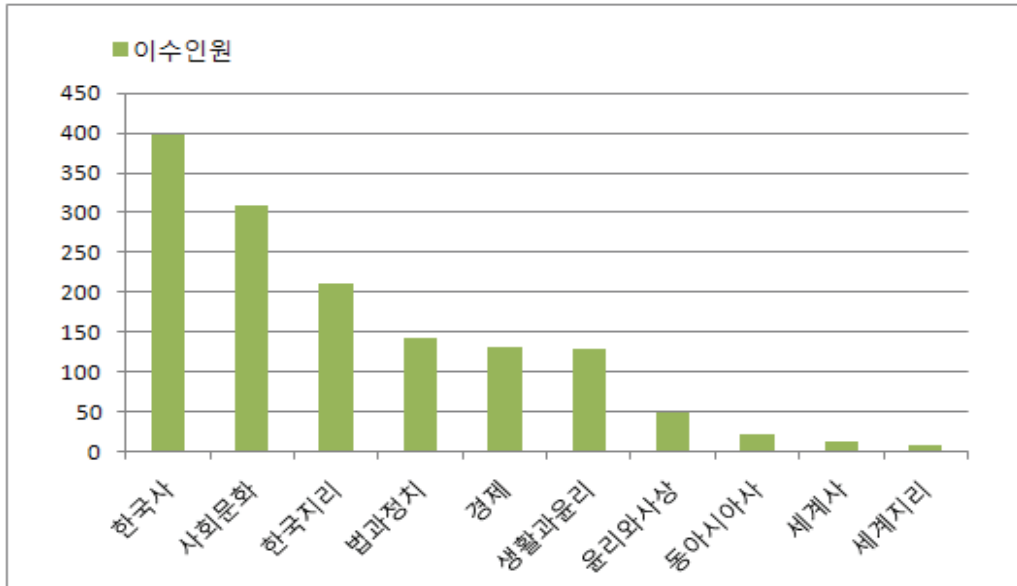
역사 영역의 세계사 과목은 13명으로 3.4%, 동아시아사 과목은 21명으로 5.4%, 한국사 과목은 388명으로 전원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 영역의 한국지리 과목은 210명으로 54.1%, 세계지리 과목은 8명으로 2.1%이었으며 윤리 영역의 윤리와 사상 과목은 50명으로 12.9%, 생활과 윤리 과목은 129명으로 33.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선택과목 이수 현황은 한국사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문화, 한국지리, 법과 정치,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세계사, 세계지리 과목 순이었다.

<표 7> 11학년 사회과 선택과목 이수 현황

영역	과목	이수 인원 (n=388)	비율 (%)
일반 사회	사회·문화	308	79.4
	경제	130	33.5
	법과 정치	142	36.6
역사	세계사	13	3.4
	한국사	388	100
	동아시아사	21	5.4
지리	한국지리	210	54.1
	세계지리	8	2.1
윤리	윤리와 사상	50	12.9
	생활과 윤리	129	33.2



[그림 2] 11학년 사회과 과목별 이수 인원

### 3) 사회과 과목 선택 의사

#### ① 12학년 사회과 과목 선택

과목 선택 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로써, 3과목을 복수응답 처리하도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학년 연구대상인 402명의 학생들이 다가올 대입 수능시험에서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선택과목 현황은 <표 8>과 같으며, 과목별 선택 인원을 그래프로 정리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일반사회 영역의 사회·문화 과목은 214명으로 53.2%, 경제 과목은 106명으로 26.4%, 법과 사회 과목은 34명으로 8.5%, 정치 과목은 116명으로 28.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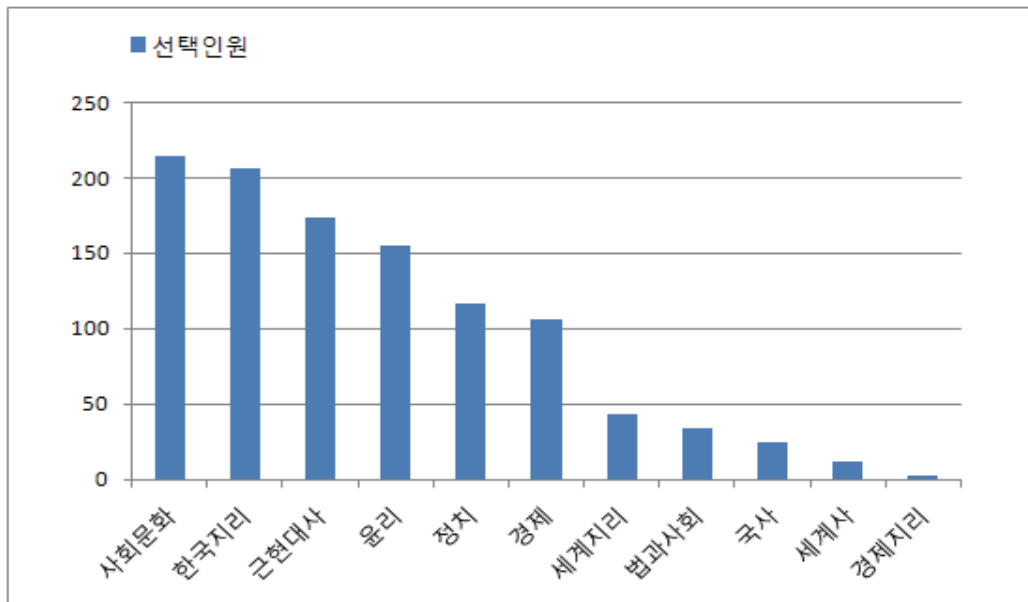
역사 영역의 국사 과목은 24명으로 5.9%, 세계사 과목은 12명으로 2.9%, 한국근·현대사 과목은 174명으로 43.3%의 비율을 보였다.

지리 영역의 한국지리 과목은 206명으로 51.2%, 세계지리 과목은 43명으로 10.7%, 경제지리 과목은 2명으로 0.4%였으며 윤리 과목은 155명으로 38.6%의 비율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겠다고 응답한 과목의 선택 비율을 보면, 사회·문화 과목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윤리, 정치, 경제, 세계지리, 법과 사회, 국사, 세계사, 경제지리 과목 순이었다. 이는 최근 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 비율에 상응하는 결과이다.

<표 8> 12학년 사회과 과목 선택

영역	과목	선택 인원 (n=402)	비율 (%)
일반 사회	사회·문화	214	53.2
	경제	106	26.4
	법과 사회	34	8.5
	정치	116	28.9
역사	국사	24	5.9
	세계사	12	2.9
	한국근·현대사	174	43.3
지리	한국지리	206	51.2
	세계지리	43	10.7
	경제지리	2	0.4
	윤리	155	38.6



[그림 3] 12학년 사회과 과목별 선택 인원

## ② 11학년 사회과 과목 선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과목 선택 의사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로써, 2과목을 복수응답 처리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학년 연구대상인 388명의 학생들이 다가올 대입 수능시험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선택과목은 <표 9>와 같으며, 과목별 선택 인원을 그래프로 정리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일반사회 영역의 사회·문화 과목은 118명으로 30.4%, 경제 과목은 47명으로 12.1%, 법과 정치 과목은 64명으로 1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역사 영역의 세계사 과목은 24명으로 6.2%, 한국사 과목은 94명으로 24.2%, 동아시아사 28명으로 7.2%의 비율을 보였다.

지리 영역의 경우, 한국지리 과목은 105명으로 27.1%, 세계지리 과목은 9명으로 2.3%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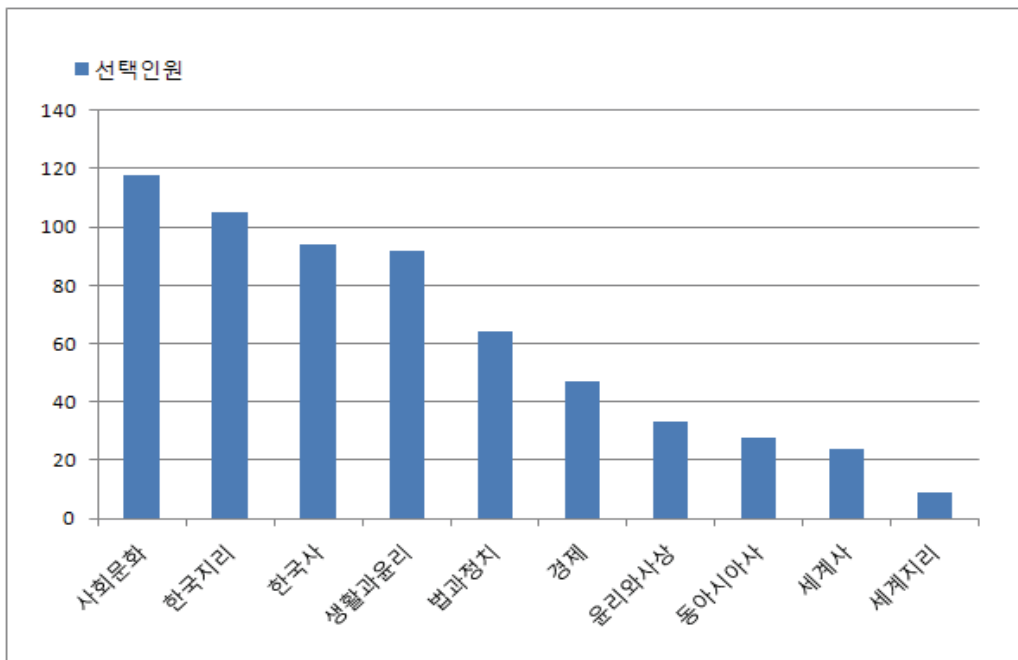
윤리 영역의 윤리와 사상 과목은 33명으로 8.5%, 생활과 윤리 과목은 92명으로 23.7%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겠다고 답한 과목의 선택 비율을 보면, 사회·문화 과목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지리, 한국사,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 경제,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세계사, 세계지리 과목 순이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사, 윤리 과목 등은 최근 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현황 뿐 아니라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선택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11학년 사회과 과목 선택

영역	과목	선택 인원 (n=388)	비율 (%)
일반 사회	사회·문화	118	30.4
	경제	47	12.1
	법과 정치	64	16.5
역사	세계사	24	6.2
	한국사	94	24.2
	동아시아사	28	7.2
지리	한국지리	105	27.1
	세계지리	9	2.3
윤리	윤리와 사상	33	8.5
	생활과 윤리	92	23.7



[그림 4] 11학년 사회과 과목별 선택 인원

## 2. 인식 특성 측정척도의 신뢰성 검증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뢰성은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균희, 2008).

본 연구에서는 일반사회과 심화과목에 대한 인식 특성 측정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 알파계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 알파계수는 0과 1사이에 값을 가지며 반응의 오차가 전혀 없다면 신뢰도는 1이 되며, 오차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0에 가까워진다. 결국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측정 오차가 적은 상태인 것을 말한다(원태연 외, 2004).

신뢰도 계수는 정밀한 연구에서 0.7이상을, 일반적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서는 0.6 이상의 신뢰도이면 무난한 수준으로 판단한다(우수명, 2010).

일반사회과 선택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 인식 특성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사회·문화 과목의 신뢰도 계수는 .890, 경제 과목은 .901, 법과 사회 과목은 .872, 정치 과목은 .906, 법과 정치 과목은 .910이었다.

즉 일반사회과 심화선택 과목인 5과목 모두 신뢰도 수준이 0.8 이상으로 매우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0> 인식 특성의 신뢰성 검증 결과

구분	항목 제거시 알파계수				
	사회·문화	경제	법과 사회	정치	법과 정치
선호도	.869	.876	.846	.886	.890
중요도	.878	.889	.859	.899	.910
흥미도	.867	.878	.841	.884	.890
적성도	.867	.878	.838	.884	.893
성적유리성	.878	.892	.851	.896	.897
난이도	.879	.901	.861	.896	.903
학습분량	.886	.903	.881	.904	.907
진로관련성	.885	.897	.870	.902	.896
생활유용성	.886	.893	.868	.909	.912
<b>Cronbach 알파계수</b>	<b>.890</b>	<b>.901</b>	<b>.872</b>	<b>.906</b>	<b>.910</b>

### 3. 실증분석

#### 1) 사회·문화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 ① 사회·문화 과목 이수 여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790명의 연구대상 학생들 중 2012학년도 1학기 까지 사회·문화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676명(85.6%)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으며, 이는 사회·문화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사회·문화 과목 이수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이수	676	85.6
미이수	114	14.4
계	790	100

##### ② 사회·문화 과목 선택 여부

사회·문화 과목을 이수한 676명의 학생들 중 대입 수능시험에서 사회·문화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332명(49.1%),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50명(22.2%)이었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94명(28.7%)이었다(<표 12> 참조).

<표 12> 사회·문화 과목 선택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선택	332	49.1
미선택	150	22.2
미결정	194	28.7
계	676	100

또한 설문조사 대상 790명의 전체 학생들 중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응시하겠다고 응답한 학생 332명의 비율은 42.0%에 불과하다.

위의 결과는 최근 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의 비율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표 13> 참조). 이러한 차이는 아직 미결정한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선택 과목 수가 2개로 축소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13> 사회·문화 과목 선택 비율과 수능 시험 응시 비율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0학년도 수능 n=372,113	2011학년도 수능 n=387,887	2012학년도 수능 n=399,679	본 연구 분석결과 n=790
인원	280,470	287,918	239,665	332
비율	75.4	74.2	60.0	42.0

### ③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결과는 <표 14>에 정리하였다.  $\chi^2$ 이 223.526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가 83.2%로 높은 편이었다.

<표 7>를 보면 일반 특성의 성별 변수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대입 수능시험에서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여학생일수록 더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식 특성에서는 선호도와 성적유리성 변수가  $p < .01$  수준에서, 진로관련성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문화 과목을 좋아할수록, 수능시험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을수록 사회·문화 과목을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문화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특성으로 예상했던 난이도, 학습 분량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성별이 수능시험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일반 특성이고 선호도, 성적유리성, 진로관련성 변수가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식 특성이며,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선호도와 성적유리성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4> 사회·문화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구분	변수	B	S.E	Wals	Exp(B)
일반 특성	성별 (남자=1)	-.766***	.280	7.499	.465
	성적 수준	.055	.146	.144	1.057
	가정 계층	.205	.149	1.885	1.227
	희망 전공	.048	.069	.481	1.049
인식 특성	선호도	.906***	.248	13.323	2.473
	중요도	-.197	.214	.844	.822
	흥미도	.324	.248	1.709	1.383
	적성도	.099	.215	.214	1.104
	성적유리성	.839***	.170	24.361	2.315
	난이도	.196	.169	1.339	1.216
	학습분량	-.065	.175	.138	.937
	진로관련성	.344**	.171	4.064	1.411
	생활유용성	-.051	.187	.074	.951
상수항		-7.022***	1.083	42.042	.001
$\chi^2$		223.526***			
분류정확도		83.2%			
Nagelkerke R <sup>2</sup>		.522			

$p < .1^*$ ,  $p < .05^{**}$ ,  $p < .01^{***}$

## 2) 경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 ① 경제 과목 이수 여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790명의 연구대상 학생들 중 2012학년도 1학기 까지 경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표 15>에 제시한 바와 같이 357명 (45.2%)으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표 15> 경제 과목 이수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이수	357	45.2
미이수	433	54.8
계	790	100

### ② 경제 과목 선택 여부

경제 과목을 이수한 357명의 학생들 중 대입 수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53명(42.9%),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11명(31.1%),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93명(26.0%)이었다(<표 16> 참조).

또한 설문조사 대상 790명의 전체 학생들 중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 153명의 비율은 19.4%이다.

< 표 16 > 경제 과목 선택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선택	153	42.9
미선택	111	31.1
미결정	93	26.0
계	357	100

또한 설문조사 대상 전체 학생들 중 경제 과목을 선택하고자 한 학생의 비율은 2011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응시한 학생의 비율과 같고, 2012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응시한 학생의 비율 보다는 약 2배 높다(<표 17> 참조). 이러한 차이는 경제 과목을 응시하고자 한 학생들이 실제 수능시험에서는 다른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7> 경제 과목 선택 비율과 수능 시험 응시 비율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0학년도 수능 n=372,113	2011학년도 수능 n=387,887	2012학년도 수능 n=399,679	본 연구 분석결과 n=790
인원	84,837	75,372	41,726	113
비율	22.8	19.4	10.4	19.4

### ③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결과는 <표 18>에 정리하였다.  $\chi^2$ 이 142.218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가 81.8%로 높은 편이었다.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남학생일수록 경제 과목을 더 선택한다는 한경동·장경호(2011)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인식 특성에서는 선호도와 진로관련성 변수가  $p < .01$  수준에서, 성적유리성 변수가  $p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제 과목을 좋아할수록,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을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특성으로 예상했던 난이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육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안병근(2010)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선호도, 성적유리성, 진로관련성 변수가 수능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식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8> 경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구분	변수	B	S.E	Wals	Exp(B)
일반 특성	성별 (남자=1)	-.574	.399	2.066	.563
	성적 수준	.069	.185	.141	1.072
	가정 계층	.115	.213	.292	1.122
	희망 전공	-.069	.097	.506	.934
인식 특성	선호도	.948***	.360	6.932	2.581
	중요도	-.152	.283	.288	.859
	흥미도	-.011	.345	.001	1.011
	적성도	.404	.315	1.645	1.498
	성적유리성	.419*	.238	3.091	1.520
	난이도	.194	.260	.557	1.214
	학습분량	.002	.237	.000	1.002
	진로관련성	.549***	.186	8.711	1.731
	생활유용성	-.272	.236	1.323	.762
상수항		-5.277***	1.435	13.531	.005
$\chi^2$		142.218***			
분류정확도		81.8			
Nagelkerke R <sup>2</sup>		.560			
$p < .1^*$ , $p < .05^{**}$ , $p < .01^{***}$					

### 3) 법과 사회

#### ① 법과 사회 과목 이수 여부

독립 교과로서의 법과 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속해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과목이므로 2학년 학생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402명의 연구대상 학생들 중, 2012학년도 1학기까지 법과 사회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표 19>에 제시한 바와 같이 107명(26.6%)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표 19> 법과 사회 과목 이수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이수	107	26.6
미이수	295	73.4
계	402	100

#### ② 법과 사회 과목 선택 여부

법과 사회 과목을 이수한 107명의 학생들 중 대입 수능시험에서 법과 사회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34명(31.8%),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48명(44.8%),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명(23.4%)이었다(<표 20> 참조).

또한 설문조사 대상 3학년 학생 402명 중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 34명의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표 20> 법과 사회 과목 선택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선택	34	31.8
미선택	48	44.8
미결정	25	23.4
계	107	100

설문조사 대상 3학년 학생들 중 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하고자 한 학생의 비율은 최근 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의 비율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다(<표 21> 참조). 이러한 차이는 법과 사회 과목의 존폐와 관련하여, 과목을 개설한 학교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학생들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법과 사회 과목 선택 비율과 수능 시험 응시 비율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0학년도 수능 n=372,113	2011학년도 수능 n=387,887	2012학년도 수능 n=399,679	본 연구 분석결과 n=402
인원	63,735	63,520	46,838	34
비율	17.1	16.4	11.7	8.5

### ③ 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결과는 <표 22>에 정리하였다.  $\chi^2$ 이 59.697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가 89.0%로 높은 편이었다.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식 특성에서는 선호도, 성적유리성, 진로관련성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법과 사회 과목을 좋아할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을수록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과 사회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특성으로 예상했던 흥미도, 적성도, 생활유용성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경희(2010)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선호도, 성적유리성, 진로관련성 변수가 수능시험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식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2> 법과 사회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구분	변수	B	S.E	Wals	Exp(B)
일반 특성	성별 (남자=1)	-.897	.913	.964	.408
	성적 수준	.741	.478	2.402	2.098
	가정 계층	-.393	.615	.409	.675
	희망 전공	-.122	.197	.381	.885
인식 특성	선호도	2.017**	.807	6.242	7.514
	중요도	-1.433	.919	2.428	.239
	흥미도	-.585	.798	.537	.557
	적성도	.746	.795	.880	2.108
	성적유리성	1.121**	.566	3.931	3.069
	난이도	-.489	.600	.664	.613
	학습분량	-.183	.580	.099	.833
	진로관련성	.991**	.400	6.130	2.694
	생활유용성	.589	.604	.953	1.803
상수항		-8.955**	3.767	5.653	.000
$\chi^2$		59.697***			
분류정확도		89.0			
Nagelkerke R <sup>2</sup>		.696			
$p < .1^*$ , $p < .05^{**}$ , $p < .01^{***}$					

#### 4) 정치

##### ① 정치 과목 이수 여부

정치 과목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 속한 독립 교과이므로, 2학년 학생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402명의 연구 대상 학생들 중, 2012학년도 1학기까지 정치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표 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289명(71.9%)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표 23> 정치 과목 이수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이수	289	71.9
미이수	113	28.1
계	402	100

##### ② 정치 과목 선택 여부

정치 과목을 이수한 289명의 학생들 중 대입 수능시험에서 정치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16명(40.1%),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11명(38.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62명(21.5%)이었다(<표 24> 참조).

또한 설문조사 대상 3학년 학생들 402명 중에서 정치 과목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 116명의 비율은 28.9%이다.

<표 24> 정치 과목 선택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선택	116	40.1
미선택	111	38.4
미결정	62	21.5
계	289	100

또한 위의 결과는 2010년과 2011년 수능시험에서 정치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고, 2012년 수능시험 응시 비율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치이다(<표 25> 참조).

이러한 차이 역시 경제 과목과 마찬가지로 정치 과목을 선택하고자 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다른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 정치 과목 선택 비율과 수능 시험 응시 비율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0학년도 수능 n=372,113	2011학년도 수능 n=387,887	2012학년도 수능 n=399,679	본 연구 분석결과 n=402
인원	127,937	124,623	92,602	116
비율	34.4	32.1	23.2	28.9

### ③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결과는 <표 26>에 정리하였다.  $\chi^2$ 이 138.908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정확도가 81.1%로 높은 편이었다.

<표 7>를 보면 일반 특성의 성별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대입 수능시험에서 정치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여학생일수록 정치 과목을 더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식 특성에서는 선호도 변수가  $p < .01$  수준에서, 적성도와 성적유리성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치 과목을 좋아할수록,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수록, 수능시험에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성별 변수가 수능시험에서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학생의 일반 특성이고 선호도, 적성도, 성적유리성 변수가 정치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식 특성이며,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선호도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6> 정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구분	변수	B	S.E	Wals	Exp(B)
일반 특성	성별 (남자=1)	-1.001**	.443	5.112	.368
	성적 수준	.242	.232	1.090	1.274
	가정 계층	-.295	.240	1.520	.744
	희망 전공	-.055	.110	.250	.947
인식 특성	선호도	1.043***	.396	6.935	2.836
	중요도	-.019	.329	.003	.981
	흥미도	-.036	.407	.008	.965
	적성도	.900**	.358	6.338	2.461
	성적유리성	.575**	.292	3.874	1.778
	난이도	.055	.307	.033	1.057
	학습분량	-.115	.303	.143	.892
	진로관련성	.018	.236	.006	1.018
	생활유용성	-.273	.293	.870	.761
상수항		-4.916***	1.753	7.862	.007
$\chi^2$		138.908***			
분류정확도		81.1			
Nagelkerke R <sup>2</sup>		.610			
$p < .1^*$ , $p < .05^{**}$ , $p < .01^{***}$					

## 5) 법과 정치

### ① 법과 정치 과목 이수 여부

법과 정치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및 정치 과목이 통합 편성된 교과이므로 3학년 학생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388명의 연구대상 학생들 중, 2012학년도 1학기까지 법과 정치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표 27>에 제시한 바와 같이 142명(36.6%)으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표 27> 법과 정치 과목 이수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이수	142	36.6
미이수	246	63.4
계	388	100

### ② 법과 정치 과목 선택 여부

법과 정치 과목을 이수한 142명의 학생들 중 대입 수능시험에서 법과 정치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64명(45.1%),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30명(21.1%),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48명(33.8%)으로 선택율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었다(<표 28> 참조).

또한 설문조사 대상 2학년 학생인 388명의 학생들 중에서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 64명의 비율은 16.5%이다.

<표 28> 법과 정치 과목 선택 여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선택	64	45.1
미선택	30	21.1
미결정	48	33.8
계	142	100

③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결과는 <표 29>에 정리하였다.  $\chi^2$ 이 70.239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가 91.5%로 높은 편이었다.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식 특성에서는 중요도와 성적유리성 변수가  $p < .1$  수준에서, 적성도 변수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법과 정치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수능시험에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수록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중요도, 적성도, 성적유리성 변수가 수능시험에서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식 특성이며,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적성도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9> 법과 정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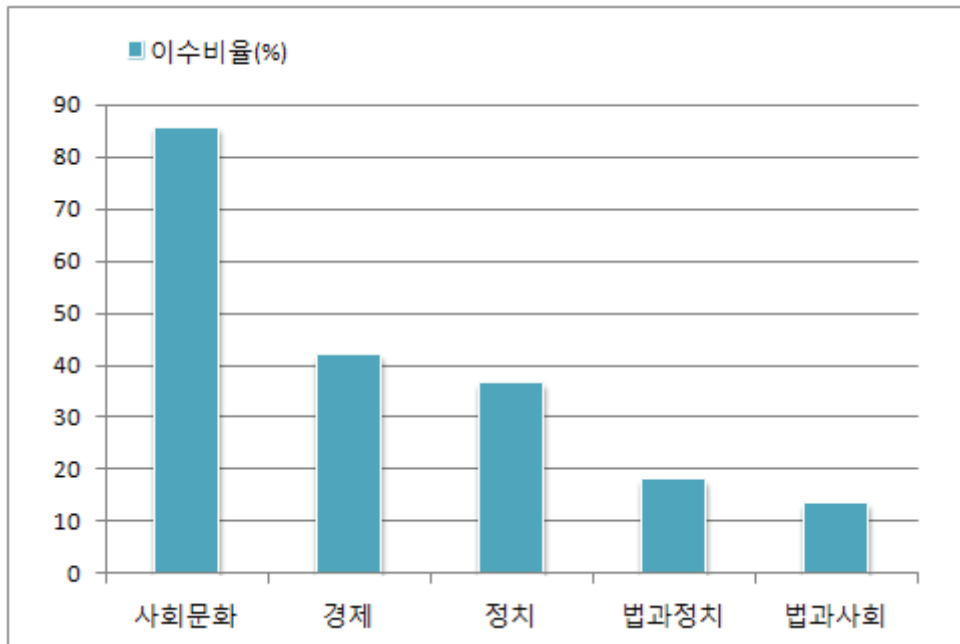
구분	변수	B	S.E	Wals	Exp(B)
일반 특성	성별 (남자=1)	.095	.975	.010	1.100
	성적 수준	.505	.516	.958	1.656
	가정 계층	-.778	.599	1.684	.459
	희망 전공	.190	.251	.568	1.209
인식 특성	선호도	.761	.723	1.107	2.140
	중요도	1.536*	.804	3.645	4.645
	흥미도	-.550	.752	.536	.577
	적성도	2.109***	.745	8.018	8.241
	성적유리성	1.274*	.701	3.302	3.575
	난이도	-.271	.615	.194	.763
	학습분량	.010	.626	.000	1.010
	진로관련성	-.620	.632	.964	.538
	생활유용성	.208	.564	.136	1.232
상수항		-12.913***	4.889	6.975	.000
$\chi^2$		70.239***			
분류정확도		91.5			
Nagelkerke R <sup>2</sup>		.737			

*p* < .1\*, *p* < .05\*\*, *p* < .01\*\*\*

## 6) 분석 결과 종합

### ① 일반사회과 선택과목 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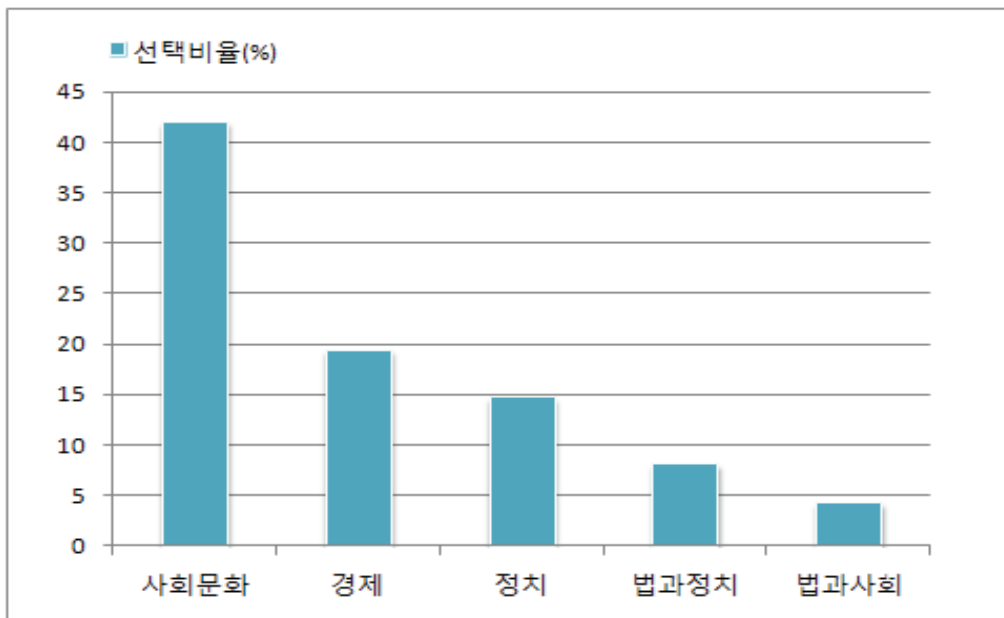
연구대상 790명의 학생들이 사회·문화, 경제, 법과 사회, 정치, 법과 정치 과목 중 가장 많이 이수한 과목은 사회·문화 과목으로 676명(85.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 357명(42.0%), 정치 289명(36.6%), 법과 정치 142명(18.0%), 법과 사회 107명(13.5%) 순이었다. [그림 5]는 이수 비율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정치, 법과 정치, 법과 사회 과목의 이수 비율이 적은 것은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11학년, 12학년 중 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림 5] 일반사회과 선택과목 이수 비율

## ②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 비율

연구대상 790명의 학생들이 사회·문화, 경제, 법과 사회, 정치, 법과 정치 과목 중 가장 많이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과목은 사회·문화 과목으로 332명(42.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 153명(19.4%), 정치 116명(14.7%), 법과 정치 64명(8.1%), 법과 사회 34명(4.3%) 순이었다. [그림 6]는 선택하고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정치, 법과 정치, 법과 사회 과목의 선택 비율이 적은 것 역시 이수 비율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11학년, 12학년 중 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림 6]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 비율

## ③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일반사회과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일반 및 인식 특성

변수를 정리하여 <표 30>에 제시하였다.

여학생일수록 대입 수능시험에서 사회·문화와 정치 과목을 더 선택하고자 하며, 성별을 제외한 일반 특성의 성적 수준, 가정 계층, 희망 전공 변수는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문화 과목은 여학생일수록,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진로와 연관성이 있을수록 학생들이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과목은 경제 과목을 좋아할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진로와 연관이 있을수록 학생들이 더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과 사회 과목 또한 경제 과목과 마찬가지로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진로와 연관성이 있을수록 학생들이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과목은 여학생일수록, 선호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학생들이 더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과 정치 과목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학생들이 더 선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요도 변수는 법과 사회 과목과 정치 과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변수로, 과목의 통합 편성으로 인해 변화된 인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과목 선택에 영향을 주는 학생의 인식 특성으로 예상했던 흥미도, 난이도, 학습 분량, 생활유용성 변수는 모든 과목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변수		회귀계수				
		사회·문화	경제	법과 사회	정치	법과 정치
일반 특성	성별	-.766***	-	-	-1.001**	-
인식 특성	선호도	.906***	.948***	2.017**	1.043***	-
	중요도	-	-	-	-	1.536*
	적성도	-	-	-	.900**	2.109***
	성적유리성	.839***	.419*	1.121**	.575**	1.274*
	진로관련성	.344**	.549***	.991**	-	-

$p < .1^*$ ,  $p < .05^{**}$ ,  $p < .01^{***}$

## 7)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게 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일반 특성 중 성별 변수만이 사회·문화와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성별 변수를 제외한 모든 일반 특성은 과목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과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반 특성 보다는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과 정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선호도 변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흥미도, 생활유용성 변수는 모든 과목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중요도, 적성도 변수는 일부 과목에서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흥미도, 중요도, 적성도, 생활유용성 변수는 선호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으로 선호도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가에 대한 다방면의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나아가 대입 수능시험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흥미도 변수는 일반사회과의 모든 과목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사회과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과목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과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생들이 일반사회과 과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과목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발하고, 수업 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과 교수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도 변수는 법과 정치 과목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사

회와 정치 과목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편성됨으로써 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정치 과목과 관련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대입 수능시험에서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넷째, 적성도 변수가 정치와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인식 특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적 탐구능력과 소질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입수능시험에서의 선택 비율을 높이고 이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적유리성 변수가 모든 일반사회과 과목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인식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난이도와 학습분량 변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적유리성에 대한 인식이 난이도와 학습분량과는 별개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구성 및 수능 평가 문항의 난이도 조절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사회과 과목의 선택이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관련성에 관한 인식이 사회·문화, 경제, 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 성적뿐 아니라, 미래의 진로까지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문·사회계열 혹은 상경계열 학과의 진학을 위해 반영되는 수능시험 성적에, 학과와 관련된 사회탐구영역 과목의 성적을 가산점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문계열 학과 지원 시, 제2외국어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은 비단 일반사회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과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 IV. 결 론

### 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일반사회과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일반사회과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과 향후 사회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 과목은 여학생일수록, 선호도가 높을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진로와 관련이 있을수록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와 법과 사회 과목은 선호도가 높을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진로와 관련이 있을수록 학생들이 더 선택하고자 하였다. 정치 과목은 여학생일수록, 선호도가 높을수록,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정치 과목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수록,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학생들이 더 선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얻게 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일반 특성은 성별뿐이었으므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인식 특성은 선호도, 중요도, 적성도, 성적유리성, 진로관련성이었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으로 선호도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고,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대입 수능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특 사회과학적 탐구능력과 소질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사회과 과목의 선택이 수능시험 성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관련이 있을수록 일반사회과 과목을 더 선택하고자 하므로 관련학과 진학 시 사회과 심화과목 수능 성적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 2.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경계에 있는 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정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사회과에 속하는 모든 과목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수가 줄고 통폐합되는 등 교육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사회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중등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연구의 대상을 서울·경기 지역의 학생들로 국한하여, 표본의 지역적 편재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학생의 인구 수를 보면 2011년 일반계고를 기준으로, 전체 1,425,882명 중 서울·경기 지역의 학생들이 606,979명으로써 4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므로 지역적 편재성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사회탐구영역에 대한 정보가 아직 부족하여 일부 독립 변수가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 여부라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의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사회과 선택과목의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설명회 등과 같은 정보 제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설명력 있는 추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사회과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향후 사회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창동(2004),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2호, pp. 1-21.
- 강현석(2004),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곽한영(2005),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조사, 『시민교육연구』, 제37권 3호, pp. 1-24.
- 교육과학기술부(2007),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 고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6), 제7차 교육과정 총론.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
- 김명정(2010),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법과 정치. 『법교육연구』, 제5권 1호, pp. 47-68.
- 김재춘·박소영(2004),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6권 1호, pp. 69-83
- 김정호(2005),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중호(2006), 학교 경제 교육 목표의 이론적 고찰, 『한국초등교육』, 제17권 1호, pp. 57-82.
- 김주동(2006), 고등학생의 성별·지역별·공사립학교의 차이가 사회과 심화

과목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성혁(2005), 법교육의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7권 1호, pp. 55-80.

박정옥(2005), 제7차 교육과정 지리 과목에 대한 고등학생의 선호도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인기(2003),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교육청(2002),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소경희(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 선택권'의 의미와 구현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20권 4호, pp. 87-106.

신민자·송방호(2006), 과학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과목 선택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의 차이점 비교, 『하계학술대회 및 전국과학교사 현장연구 워크숍』, pp. 174.

안병근(2010), 대학대입 수능시험에서 '경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교육연구』, 제17권 7호, pp. 1-16.

옥일남(2011), 사회과 정치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 연구, 『사회과교육』. 제 50권 3호, pp. 67-91.

우수명(2010), 마우스로 잡는 PASW 18.0, 서울: 인간과 복지.

원태연·정석원(2008), 통계조사분석, SPSS 아카데미.

유응욱·최관용·최정환·김승일(2001),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체육 과목 선택에 대한 학생 인식 조사, 『제3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pp.193-199.

- 은지용(2006),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내용 타당성에 대한 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8권 1호, pp. 97-137.
- 은지용·모경환(2006),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8권 3호, pp. 97-130.
- 이군희(2008),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법문사.
- 이의갑(2006), 고등학교 영어과 선택교육과정 과목 개설에 관한 설문 조사 연구, 『외국어교육』, 제13권 4호, pp. 299-324.
- 전제철(2010), 2009개정 사회과 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시민교육연구』, 제42권 4호, pp. 79-101.
- 주은옥(2004),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7권 1호, pp. 169-191.
- 주태연(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텍스트의 내러티브 서술양식이 학업성취도와 과목선호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교육』, 제47권 1호, pp. 133-156.
- 정경희(2010), ‘법과 사회’ 과목에 대한 고등학생 계열별 인식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5), 일반 고교의 선택과목 연구 : 미술과 생활을 선택한 학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재관(2006),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차경수·모경환(2009),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 채석훈(2008),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 선택과목 편중 현상의 원인 및 그 대처 방안: 물리 교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화·장윤옥(2000),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정과학’ 과목 선택 결정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2권 3호, pp.157-170.
- 최재철(2006), 중학교 스페인어 과목의 학습자 선택권, 『외국어교육』, 제13권 2호, pp.453-475.
- 한경동·장경호(2011),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18권 2호, pp.45-57.
- 홍후조(2002), 선택 ‘주체’ 위주의 선택 교육과정 설계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학연구』, 제40권 1호, pp. 177-195.

# **ABSTRACT**

## **Analysis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Affected to Selection of the Elective-Centered Subject in Social Studies**

**Eunyoung Kim**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Examination (hereafter "CSAE") has been conducted every year following new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since 1994. The Social Studies inquiry subject among the CSAE ha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of demand side because every CSAE takers have options of the subjects to take. Social Studies which is one of the Social Studies inquiry subject was organized in four subjects following The 7th Curriculum. However, in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t was reduced to three subjects due to be integrated some subjects. Those revisions of curriculum proved revealingly that educational position of theses curricula has been narrower, and we cannot rest assured that the subject would be subsisted or persisted. Therefore, to overcome this phenomenon, completing the course and increasing the percentage of selection in the CSAE by many students in

order to enhance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in Social Studies.

This study started with these critical minds conducted a survey 2nd or 3rd grade of high school student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who wanted to choose the advanced subject in Social Studies. On the basis of this survey and analysis, the ways which to help many students select a subject in Social Studies were discuss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Society and Culture subject was assessed to be chosen from the female students, the higher the affinity, the students who think it is beneficial to the CSAE score and related more to career. Economics, Law and Society subject was rated to be selected from the higher the affinity, the students who think it is beneficial to the CSAE score and related more to career. Political subject was chosen from the female students, the higher the affinity, the students who think it is suited their personality and beneficial to the CSAE score.

Plus, the students who have high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think it is suited their personality and beneficial to the CSAE score would choose the subject of Law and Politic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affected in selection of the elective-centered subject in Social Studies were as well as gender, further efforts to improve the students' awareness would be necessary.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of recognition were affinity, competency, career relevance, and beneficial to the CSAE score. Therefore, further research of the factors affecting high or low decision, and further effort that affects to the students' selection through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subjects consistently is required. In addition, further measures are also in needs which improve the student's social scientific inquiry skills and talent to help them think the subjects are suited their personality and there are further discussions of the ways are necessary that how to make them consider social studies is more beneficial to the CSAE score than other subjects. Finally, the next studies would be possibly offered to consider for the methods which to give an extra credit to the students who would select social studies and apply the courses associated with Social Studies in college because they choose the subject which is more related with their career. The further research and review of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ose results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2nd or 3rd grade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in the humanities and society course, on the border between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7th Curriculum, which would be significant because it has researched every subjects belonging to the Social Studies and is not been limited to certain subject. Although the educational position in Social Studies inquiry subject has been narrowed and the optional subjects have been decreased and merged each other, this will be a remarkable opportunity to contemplate the development of future education and the effective enhancement in Social Studies.

## <부록 1> 설문지 - 3학년용

### 일반사회과 심화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고등학교 일반사회과 심화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의 어떠한 항목도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 보기에 V표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 박 형 준

석사과정 : 김 은 영



7. 사회탐구영역 과목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 문항에 대해 그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기 준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가?	①	②	③	④	⑤
2. 내신 혹은 수능 성적에 유리한가?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쉬운 편인가?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과목에 비해 학습할 분량이 적은 편인가?	①	②	③	④	⑤
5.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6. 실생활에 유용한 과목인가?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인가?	①	②	③	④	⑤
8. 주위에서 추천하는 과목인가?	①	②	③	④	⑤
9.기타 ( )					

8. 경제 과목과 관련하여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경제 과목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경제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경제 과목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제 과목은 나의 적성에 맞다.	①	②	③	④	⑤

5. 경제 과목은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경제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경제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학습할 분량이 적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경제 과목은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경제 과목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과목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응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법과사회 과목과 관련하여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법과사회 과목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법과사회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법과사회 과목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법과사회 과목은 나의 적성에 맞다.	①	②	③	④	⑤
5. 법과사회 과목은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법과사회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법과사회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학습할 분량이 적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법과사회 과목은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법과사회 과목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과목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법과사회 과목을 응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문화 과목과 관련하여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문화 과목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회·문화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회·문화 과목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문화 과목은 나의 적성에 맞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문화 과목은 내신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문화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사회·문화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학습할 분량이 적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문화 과목은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사회·문화 과목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과목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응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정치 과목과 관련하여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 과목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정치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치 과목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정치 과목은 나의 적성에 맞다.	①	②	③	④	⑤
5. 정치 과목은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정치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학습할 분량이 적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정치 과목은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정치 과목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과목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치 과목을 응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설문지 - 2학년용

###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고등학교 일반사회과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의 어떠한 항목도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 보기에 V 표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 박 형 준  
석사과정 : 김 은 영



7. 사회탐구영역 과목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 문항에 대해 그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기 준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가?	①	②	③	④	⑤
2. 내신 혹은 수능 성적에 유리한가?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쉬운 편인가?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과목에 비해 학습할 분량이 적은 편인가?	①	②	③	④	⑤
5.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6. 실생활에 유용한 과목인가?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인가?	①	②	③	④	⑤
8. 주위에서 추천하는 과목인가?	①	②	③	④	⑤
9.기타 ( )					

8. 경제 과목과 관련하여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경제 과목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경제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경제 과목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제 과목은 나의 적성에 맞다.	①	②	③	④	⑤

5. 경제 과목은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경제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경제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학습할 분량이 적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경제 과목은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경제 과목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과목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응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사회·문화 과목과 관련하여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문화 과목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회·문화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회·문화 과목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문화 과목은 나의 적성에 맞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문화 과목은 내신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문화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사회·문화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학습할 분량이 적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문화 과목은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사회·문화 과목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과목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응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법과정치 과목과 관련하여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법과정치 과목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법과정치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법과정치 과목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법과정치 과목은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다.	①	②	③	④	⑤
5. 법과정치 과목은 내신 또는 수능 성적에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법과정치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법과정치 과목은 다른 사회탐구영역 과목에 비해 학습할 분량이 적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법과정치 과목은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법과정치 과목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과목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법과정치 과목을 응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